

수행활동을 중심으로 한 공공가정의 개념과 경영원리

The Function-oriented Conceptualization of 'Institutional Households' and the Applications of Management Principals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조교수 송혜림

Dep.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lsan Univ.
Assistant Prof. : Dr.oec. Hye Rim, SO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공공가정관리 전문가의
활동범주 |
| II. 부양경영체의 한 형태로서
공공가정의 수행기능과 그 특성 | V. 결론 |
| III. 공공가정의 목표와 경영원리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concept of institutional households in the context of its human-needs-satisfying function.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refine the research boundary of institutional households and to develop the management principals which is appropriate to the characteristics and orientations of institutional households.

This study concludes as follows : 1. it is important to find various types and forms of institutional households for the more advanced study. 2. the professionals i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rea should have the future-oriented-perspectives in improving the concept of institutional households.

I. 서론

공공가정은 개별가정의 부양기능을 지지, 보충, 대

체하는 경영체로서 욕구충족 혹은 제한된 이윤추구를 지향하는 경영의 단위로 정의된다. 그런데 이제 까지 가정자원관리 연구분야에서 공공가정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시켜 온 과정을 보면 이러한 공공가정의 기본적인 개념에 관한 더욱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공공가정은 외국에서 가정학의 한 하위연구분야로 정착·전개되어 온 연구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학문분야에 도입, 적용될 때에는 우리의 사회적 구조와 학문적 배경에 따라 기본적인 개념이 어디까지 확장,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새로운 연구분야로서의 토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연구대상의 원칙적인 개념에 대한 전공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가정자원관리분야에서 공공가정을 거론하기 시작한 시기를 볼 때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개념의 정립을 위한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론적 기초작업은 졸업생들의 취업이라는 현실이 공공가정을 도입하게 된 보다 실제적인 이유라는 맥락에서, 공공가정관리 전문가와 관련된 현실적인 제도화작업 및 공식적인 기관에서의 인정을 위한 전공자들의 노력과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이러한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전공자들의 취업기회 및 사회에서의 활동 등과 같은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공공가정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그 대상범주를 규정하는 작업이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상술한 바와 같이 졸업생들의 취업에 관한 전공자들의 관심이 공공가정이 가정자원관리 연구분야의 한 하위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된 가장 실제적인 배경이라고 할 때, 한 편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은 공공가정이라는 연구대상의 정착과 발전에 있어서 추진력의 강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 우려되는 부정적인 측면은 졸업생들의 취업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인하여 개념에 대한 필수적인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공공가정이라는 연구대상의 개념이나 범주가 원칙을 배제한 채 확산되거나 응용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한 연구대상의 원칙적인 개념을 정립하지 않고는

그 응용분야와 졸업생들의 진로 그리고 자격 인증을 위한 제도화 작업 역시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음을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공공가정을 어떻게 개념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범주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지 않을 때, 공공가정경영을 교육받은 전공자들이 사회에 나가 공공가정관리 전문가로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혼란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부정적인 측면은 공공가정관리 전문가를 인증하기 위한 제도화 측면에서 왜 가정학(생활과학) 혹은 가정자원관리 전공자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외부적인 인정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현황을 볼 때 공공가정을 관리하는 전문가가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경영학 전공자와 비교될 수 있는 영역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공자들과의 공통점과 차별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공공가정을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원인이 되었던 졸업생들의 취업 역시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공공가정 교육을 통하여 졸업생들의 진로에 그다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공공가정과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은 공공가정의 기본개념과 대상범주를 원칙적 토대 하에서 규정하는 일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작업은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영학 원리와와의 비교를 통하여 (송혜림, 1997 참조) 혹은 사회복지학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또는 공공가정이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가와 관련된 기능적 차원이나 하위 기능영역별로 공공가정이라는 경영체를 어디까지 볼 것이며 그 수행하는 활동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 사회의 각 분야에서 공공가정관리 전문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하는가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는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공공가정의 기본개념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고찰을 함으로써 공공가정의 대상범주에 관한 전공자들 간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정자원관리 연구분야에서 공공가정을 지

속적으로 전개시킴에 있어 내부적·외부적 확신을 강화시키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공공가정관리 전문가의 자격을 인증하고 제도화하는 작업과 병행되어 졸업생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촉진하고 공공가정관리 전문가들이 과연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범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논의의 진행상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중점을 갖는다. 그 하나는 본 연구가 공공가정의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서 그 수행하는 기능, 즉 가정의 부양활동을 지지·보충·대체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체를 부양경영체로 지칭하면서 인간의 욕구충족이라는 수행기능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의의 그리고 특성 및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체가 어떤 경영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며, 이 때 부양경영체로서의 공공가정이 갖게 되는 특수성 즉 공공성의 개념이 설명될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까지 공공가정과 관련된 연구 및 논문이 공공가정의 궁극적 목표로서 구성원 혹은 이용자들의 욕구충족이라는 면에 치중하는 반면 제한된 이윤추구라는 또 다른 개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한된 욕구충족이라는 개념과 그 범주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궁극적 목표를 분명히 하면 결과적으로 그 대상의 개념 역시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상술한 두가지 초점과의 관련 속에서 공공가정을 과연 어느 범주까지 규정할 수 있는가가 명확해지면 결과적으로 공공가정관리 전문가가 어떤 경영체에서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가 하는 점도 분명해질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공공가정관리 전문가는 궁극적으로 실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관리자나 경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점이 명확해지면 공공가정경영의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교과과정이나 연구틀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II. 부양경영체의 한 형태로서 공공가정의 수행기능과 그 특성

1) 부양경영체의 특성과 의미

가정은 구성원의 직접적인 욕구충족을 목표로 부양활동을 수행하는 경영체인데, 이러한 목표 자체를 통하여 투입되는 자원에 대한 인식, 경영원리, 운영방법, 운영의 마인드와 컨셉트 등에서 이윤추구의 경영체(기업)와 근본적으로 구별이 된다. 가정의 한 유형인 공공가정은 그 중심에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Witt, 1993:188 -122), 따라서 공공가정은 하나의 부양경영체이며, 따라서 공공가정이 가정학의 한 분야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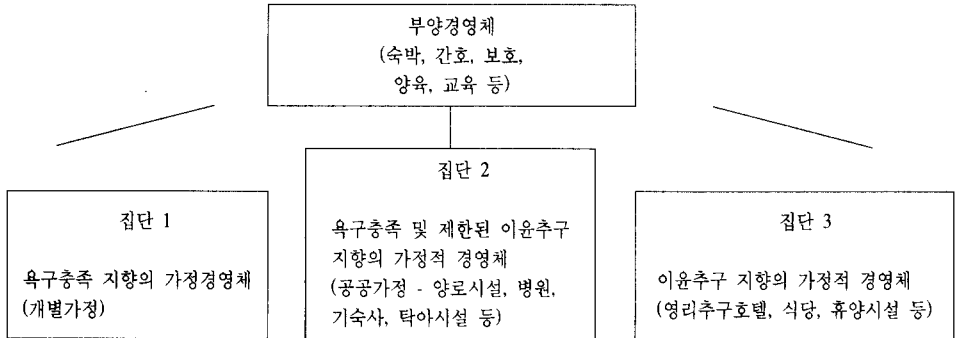
보편적으로 가정경영 및 가정자원관리 관련 연구 영역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목표로 하는 인간부양활동이다. 이는 숙박, 급식, 보호, 간호, 양육, 교육, 돌봄, 청소, 세탁, 의료활동 등과 같은 총체적인 부양활동에 해당되며 (Bottler, 1993: 109), 이는 통례적으로 지칭되는 가사노동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자원을 어떻게 관리함으로써 가족원의 욕구충족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개별가정은 가정자원을 사용하여 부양활동을 하게 되며 그 결과 가족원의 욕구가 직접적으로 충족되고,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들은 전반적인 가정경영을 구성하게 되어,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생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경영활동의 근본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v. Schweitzer, 1981:169ff)

그런데 이러한 부양활동을 수행하는 경영체는 단지 개별가정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별된다.

현재의 사회적 변화 중에서 가정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가정생산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과거와 같이 전적으로 개별가정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그 일부 혹은 전부를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그림을 보면 집단 2와 집단 3의 경영체로 가정의 부양기능이 위

〈그림 1〉 부양경영체의 유형



자료출처: Bottler, J. (1997), 공공가정 강의자료.

임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사회적/인구통계학적 원인 외에 규모의 경제라는 비용의 문제, 정책적/정치적 조건 등이 그 주된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Witt, 1993:122).

이 때 가정의 부양기능이 사회로 이전된 한 형태가 바로 공공가정이다. 따라서 공공가정은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을 갖는데, 그 하나는 수행기능에 있어서 가정의 부양활동을 지지·보충·대체한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원의 육구충족 혹은 제한된 이윤추구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의 특성이 공공가정을 가정의 또 다른 형태로 지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동시에 가정학적 배경에서 공공가정을 연구하게 되는 필수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런데 개별가정과 공공가정은 동일한 부양경영체이나 그 활동수행에 있어서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Witt, 1993:129f).

첫째, 생산과 소비의 주체에서 차이가 난다. 즉 누구를 위한 생산과 소비인가를 구별할 때,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주체 스스로가 곧 소비의 주체가 된다면 이는 개별가정에 해당되는 것이며,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다를 때, 즉 외부의 제 3자의 소비를 위한 생산일 때 이는 공공가정에 해당되는 것이다.

둘째, 경영면에 있어서 여유자본과 잉여재를 어떤 목표에서 어느정도 확보하는가에 차이가 난다. 공공가정의 활동은 제공될 필요가 있는 부양활동에 대한

공공과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예비자본과 잉여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수요의 급증, 비상사태, 혼란상태에서도 부양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상술한 바와 같이 일정한 수준까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여유자본과 재화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례적으로 공공가정은 개별가정보다 더 전문적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별가정보다 더 조직적, 체계적인 운영하에 있다고 전제할 수 있다. 따라서 언제나 필요한 부양활동이 제공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영리추구 경영체의 경우 이러한 여유자본은 여유자본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수익이 더 큰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개별가정에서의 여유자금 및 잉여재는 공공가정과 다른 차원, 다른 의도에서 구축된다. 공공가정에서 잉여재 확보의 궁극적 상위목표는 육구충족이지만 개별가정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세탁기의 경우 개별가정에서는 일정한 시간동안만 사용되기 때문에 어쩌면 세탁기를 소유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도 않고 희망사항이거나 사치품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공공가정에서 세탁기는 세탁물 규모에 있어 필수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확보의 필수성을 내포한다. 혹은 병원과 같은 시설 역시 일정한 수준의 빈 침대와 치료실을 항상 예비해 두고 있는 이유는, 비상사태에서 급박한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침대나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루

거나 거부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별가정은 요구되는 부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거나, 공공가정과 같은 다른 경영체 혹은 구매력이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 영리추구적 경영체에 위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나, 공공가정의 경우 이미 위임받은 부양활동을 제공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을 다른 시설에 또다시 위임시킬 수 없다는 점도 공공가정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공성 및 필수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예비재 및 잉여 자산과 재화를 항상 필요로 하는 원인이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제까지 인간부양과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개별가정이 수행해 오던 활동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점점 다른 경영체로 위임되어 가는 추세인데, 최근에 들어 실제적인 환경과 학문적 연구에 있어 부양활동과 관련된 영역에서 집단 1과 집단 2, 그리고 집단 3의 다양한 경영체 간의 연계관계와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한 몇 가지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유형의 변화에 따라 인간부양활동이 다른 경영체로 위임되어 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 보편적 가족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핵가족은 소수의 가족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생산기능과 재생산기능을 시간적, 공간적인 일체성을 갖고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히 가정부양활동에 상실이나 결핍이 발생할 때, 예컨대 학업이나 직업으로 인하여 혹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보편적으로 가족원 간에 주고 받도록 기대되는 부양활동이 일정기간 내지 지속적으로 장애를 받게 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개별가정의 부양기능을 다양한 형식으로 대신해 주거나 보충해 주는 다른 경영체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산업화는 필수적으로 도시화를 수반하는데, 특별히 도시의 경우 개별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정관리적 노동공간이 축소되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다. 과거 혹은 농촌의 생활양식과 비교해 볼 때, 예를 들어 우물가에 모여 세탁하는 주부들의 활동과

그 시간은 단순히 가사노동을 의미할 뿐 아니라, 다른 한 편에서는 여성들만의 대화의 시간일 수 있으며 혹은 주부들이 그들의 정서와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시간과 장소는 주부모임, 상담소, 여성대학, 평생대학 등의 사회적 교육모임이나 친교모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제도적이면서도 기구적인 부양경영체의 의미와 그에 대한 개별가정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의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원칙이 개입되어 각 개별가정에서 가족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부양활동보다는 공식적인 경영체를 통한 부양활동의 제공이 비용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점, 그리고 부양인원이나 작업공간 등을 보더라도 이러한 경영체를 통한 제공이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동시에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개별가정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보다 더 질 높은 재화와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집단 2와 집단 3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아지고 그 의미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휴가를 위하여 가족여가시설이나 휴양지를 찾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그 장소로 가기 위하여 시간과 금전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집과는 다른 장소에서 휴가나 여가를 보내려고 하는 것은, 개별가정 스스로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휴식기능을 대신해 주는 다른 경영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특별히 집단3에 속하는 경영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써, 산업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장은 교환가치를 갖는 모든 대상을 상품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측면에서 가정의 부양활동 역시 일정한 정도까지, 다시 말하여 그 부양활동을 상품화함으로써 이윤추구가 보장되는 선까지는 개인이나 기업을 통한 상품화가 지속적으로 촉진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가정의 부양활동은 반드시 가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변화하여 다른 경영체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제공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개별가정의 가사노동이 사회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면 들

어난다.

다섯째는 이러한 부양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적 연구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집단 3과 집단 2를 비교하여 볼 때, 이윤추구를 지향하는 경영체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그 역사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경영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비하여 공공가정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가 매우 짧다.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한 부양활동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가정 자체는 우리의 실제 생활세계에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여 왔으며 그만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구조화 작업은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갖고 있어서, 최근에 와서야 '복지사회'의 개념과 관련되어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려는 시도와 더불어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송혜림, 1995: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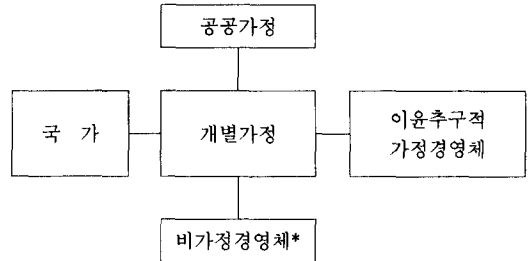
이와 같이 현재 공공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정학 분야에서 한 하위분야로 연구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학문적 성과는 일차적으로 개별가정 외에 다른 부양경영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서 학문적 연구의 결과로 인하여 부양경영체가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되며, 이용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관리방안이 체계적으로 논의된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이러한 부양경영체에 대한 인지도의 향상을 뛰어 넘는 또 다른 실제적이고도 질적인 측면에서의 발전 역시 부양경영체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공가정 수행기능의 특수성과 필수성

이상과 같이 현재 부양경영체에 대한 관심이 왜 높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배경설명을 거쳐, 이제 논의의 중심이 되는 공공가정의 수행기능으로 초점을 맞추어 보자. 공공가정이 수행하는 기능은 개별가정으로부터 위임받은 부양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공가정을 부양경영체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설명이 되었다. 부양활동에 초점을 두어, 구성원의 욕구충족이라는 측면에서 공공가정을 가정경영학의 한 하위분야로 도입하여 그 연구에서 이미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독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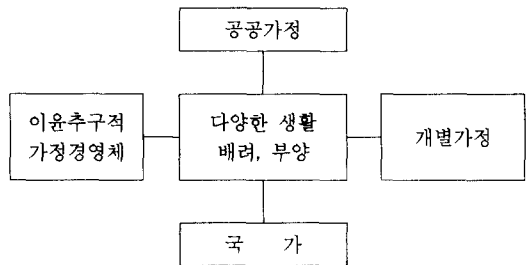
경우, 이러한 부양경영체에 대한 관점이 개별가정 중심에서 실제적인 수행기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음의 그림에 나와 있다.

〈그림 2-1〉 개별가정 중심의 가정경영학 체계



* 여기에서 비가정경영체는 부양·양육·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별가정과 관련을 갖는 경영체를 의미한다. 예컨대 재단, 사단법인, 단체 등이다.

〈그림 2-2〉 수행기능(부양활동) 중심의 가정경영학 체계 (활동, 목표 중심)



자료출처 : Bottler, J. (1997). 공공가정경영론 강의자료.

그런데 그림에서 보듯이 공공가정이 위임받아 수행하는 가정의 부양기능이 인간다운 삶에 대한 배려 혹은 부양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할 때 이러한 기능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공공성을 띤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간략하게 설명할 때, 제도화된 기관,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입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앞에서 가정의 부양기능은 공공가정 뿐 아니라 이윤추구 경영체에서도 수행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공공가정과 이윤추구 경영체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일 수 있으나, 이는 공공가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윤추구 경영체가 가정부양활동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정의 부양기능은 상술한 바와 같이 그 필수성, 기초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상품화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개인이나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표로 가정의 부양활동을 제공하는 경영체를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주체들 간의 가격단합, 그로 인한 가격의 횡포,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과 질에서의 횡포, 독점 등의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가정의 부양활동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요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공공가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윤추구 경영체에만 가정의 부양기능을 위임시키는 경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부양기능이 시장에서 상품화될 때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것이고, 구매력이 없는 사람은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혹은 생활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가정의 부양기능은 인간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까지는 도달한 상태에서 누려야 하는 필수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구매력만으로 이러한 부양기능을 누리는 조건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중 누군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부양활동을 제공받지 못할 때 이는 이윤추구 경영체가 아닌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성의 근거가 있으며, 이러한 보장은 바로 공공가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둘째, 이윤추구경영체의 경우는 투자액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도를 안 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운영의 원칙이다. 이것을 가정의 부양기능에 적용시켜 본다면, 기업의 수익원칙에 따라 가정의 부양기능이 제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조건이 형성된다. 그러나 가정의 부양기능은 이윤추구 경영체의 수익성원칙에

따라 제공될 수도 있고 혹은 안 될 수도 있는 선택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라 기초적이고도 필수적인 성질의 재화와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질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 공공기관, 제도, 정책 등 다양한 형태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가정 부양기능의 특성상,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양과 질, 가격, 조건, 환경 등에 관한 표준 혹은 기준을 그 사회, 문화, 경제적 조건을 반영하여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이윤추구 경영체에 맡겨놓는 경우 수익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회구성원들의 욕구수준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사회적인 측면에서 국가나 지역사회가 공공가정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부양활동의 기준을 정착시키고 실제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상술한 세가지 측면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부양활동을 수행하는 경영체는 그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완벽하게 상품화하거나 그 경영을 전적으로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놓을 수 없음을 제시하였는데, 이 점을 통하여 공공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그 부양활동의 공공성이 명확해 졌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전공자들 간에는 공공가정의 전망과 관련되어 복지사회로의 초기단계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가정의 의미가 클 수 있으나, 자본주의적 사회구조가 더욱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가정의 부양활동을 지지·보충·대체하는 기능을 점점 더 이윤추구적 경영체가 위임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공공가정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 왔다. 그런데 상술한 바와 같이 공공가정의 필수성과 특수성은 공공가정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요구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공공가정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과 전환적 사고를 가능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공공가정의 목표와 경영원리

- 제한된 이윤추구의 범주를 중심으로

앞에서 공공가정의 목표와 관련하여 이제까지는 구성원의 욕구충족에 관한 논의가 집중된 반면 제한된 이윤추구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논의가 없었음을 문제로 제기한 바 있다. 구성원의 욕구충족이라는 목표에 집중하여 공공가정의 실제적인 형태가 이윤추구를 전혀 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욕구충족 경영체로만 제한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공공가정의 경영에 대한 교육의 틀과 목표를 제시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윤추구를 하지 않고 욕구충족만을 목표로 하여 주어지는 재정적 보조 하에서 공공가정을 운영하게 될 때, 과연 경영의 효율성이나 합리적인 경영의 동기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공공가정의 운영상 경영의 마인드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이다.

통례적으로 경영이란 이윤추구의 목표가 있는 경영체에 적절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의 경우는 경영이라는 개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각과 관련지어 본다면 (피터 드러커, 비영리단체의 경영 - 이 기영, 1997:7에서 재인용), 공공가정과 같이 욕구충족 지향의 경영체를 운영함에 경영의 원리나 기법을 배우고 적용하는 교육과정이나 그러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의 필요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둘째,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필연적으로 졸업생들의 취업이라는 공공가정경영론 도입의 실제적 목표가 과연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을가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게 된다. 즉 공공가정을 운영함에 있어 경영의 기초원리와 그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 공공가정경영을 교육받은 졸업생들의 취업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 대하여 이미 효율적 경영의 동기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부분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즉 공공가정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대상은 무료 혹은 실비로 공공가정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반면, 경제적 능력이 있는 대상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영리추구경영체와 같은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러한 운영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다른 영리추구경영체와 공공가정을 비교하게 될 것이다.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어떤 서비스의 질이 더 높은가를 평가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체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영방식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른 영리추구경영체와 경쟁관계를 갖게 될 것이며, 따라서 동일한 비용으로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 경영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송혜림, 1997:179).

나아가서 공공가정의 또 하나의 목표가 되는 제한된 이윤추구의 개념을 모색해 보면, 다른 경영체와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제한된 이윤추구라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무제한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윤추구가 최고의, 궁극적 목표가 되지 않는 한 제한된 이윤추구의 범주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영환경이나 재정구조의 변화 혹은 경영의 효율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의도한 바 없는 이윤이 창출되는 경우 또는 장기적인 목표로서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일정기간 의도적인 이윤추구를 단기적인 목표로 삼는 경우에 해당한다 (송혜림, 1997:175).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공공가정의 제한된 이윤추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공공가정의 재무관리는 주어지는 기부금이나 보조금 그리고 이용자가 지불하는 금액으로 구성된 재무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욕구충족이 궁극적 목표라는 이유로 전혀 수익성을 의도하지 않거나 계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위한 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이윤은 추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다음 회계기간에 시설보수, 시설확장, 인건비,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충당할 자금, 예비비, 비상금, 그리고 재투자 등을 위한 적립금이 보장되는 수준에서의 수익성은 추구될

수 있으며, 이것이 제한된 이윤추구의 한 범주이다.

둘째,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경영체와 제한된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경영체를 비교할 때 기본적인 운영상의 차이 중의 하나는 일정한 회계기간 중 발생한 최종적인 이윤의 분배방식에 있다. 영리추구 경영체의 경우는 자본을 제공한 주체(자본가, 주주)에게 그 경영체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이윤이 분배되는 데 반하여, 제한된 이윤추구를 하는 경영체의 경우는 이용자와 근무자 그리고 공공가정 자체에 이윤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이다.

즉 직전 회계기간에 발생한 이윤은 그 다음 시기의 이용자에게 보다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며, 혹은 다른 공공가정을 설립하는 재원으로 축적될 수도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이러한 수익성을 발생케 한 근무자에게는 노동의 동기를 활성화하고 작업조건을 개선시키며 직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이 이윤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공공가정도 다른 경영체와 마찬가지로 이윤추구의 동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윤이란 시장을 통하여 교환되는 투입수단의 가격과 산출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즉 판매가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차액을 의미한다. 그런데 영리추구 경영체의 경우 이 차이는 통례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공공가정의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전적으로 시장의 조정에 맡겨 설정할 수 없는 공공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시장조정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윤폭을 설정함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수요/공급에 의거한 시장의 원리에 따르기 보다는 전체적이고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가정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제한적인 이윤추구에 대해서는 일정한 통제력을 가한다는 점이 공공가정의 제한된 이윤추구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다.

넷째, 무제한적인 이윤추구란 이윤이 많을수록 바람직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경영의 방향성은 가능한

한 이윤이 증가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둘 것이다. 어느 경영체이건 한 회계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예측된 정도의 이윤을 계획하게 되는데, 영리추구 경영체는 이 계획된 이윤보다 더 높은 이윤이 발생할수록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이윤추구를 하는 공공가정의 경우는 이러한 무제한적인 이윤추구가 경영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된 수준을 유지하는 경영활동에 보다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이윤을 예측하고 계획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체는 공공가정과 비공공가정이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경영과정에서 계획된 수준을 유지하는가 아니면 그 수준을 초과하는 이윤을 내기 위한 추구를 하는가 하는 점이 공공가정을 차별화시키는 한 특성이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공공가정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목표로서 제한된 이윤추구의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공공가정이 이윤과 전혀 무관하게 단지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영체라면, 효율적 경영의 동기는 단지 이용자의 만족을 더 높이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이윤추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확장시킴으로써 공공가정도 그 운영에 있어서 경쟁, 수익성 추구 그리고 투입수단의 효율적 할당과 조정에 필요한 동기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로써 공공가정경영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이론이 기초할 수 있는 토대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일본의 경우 공공가정의 한 형태인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점점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인구통계학적/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어린이집 경영에 있어서 서비스의 질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에 있어서 전문적인 경영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된 것이다. 보육의 명칭이 서비스로 변화되고, 비즈니스로서의 위치를 부여하게 되며 이용시설의 의미가 강화된다는 점이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특징이다. 즉 이제는 어린이집도 소규모의 인적 구성을 가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

인 경영의 마인드가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초기단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전략으로서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경영비전을 확실히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두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일본 「毎日新聞」에서 - 한국보육시설연합회(1997), 66-67 재인용).

이처럼 공공가정의 경영에도 서비스의 질이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공공가정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이 앞으로 더욱 관심을 두고 수행해야 하는 작업은 공공가정의 기본적 개념에 근거한 실제적인 예를 찾아내고 공공가정에 적절한 경영컨셉트를 개발, 적용하는 일이다.

IV. 공공가정관리 전문가의 활동범주

공공가정이 무엇인가 하는 기본개념의 규정은 결과적으로 공공가정경영의 교육에 필요한 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틀을 설정하게 되면 공공가정경영을 교육받은 전공자들이 공공가정관리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될 때 어느 경영체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 혹은 하여야 하는가 역시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가정관리 전문가의 구체적 활동범주를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실무자로서의 활동이며 또 하나는 관리자 혹은 경영자로서의 활동이다.

먼저 실무자 측면을 살펴보면, 한 편으로는 공공가정의 대상, 즉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어린이집,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실무자,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공공가정의 경영에 필요한 하위기능영역에서 필요한 실무자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전반적인 경영과 관련없이 각 경영체에서 일하는 실무자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노인복지시설에서는 간호사나 상담사 혹은 간병인이, 장애인재활원에서는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실무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밖에 영양사, 조리사, 회계사 등의 실무자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것이다.

이 때 위에서 언급된 전문가 즉 보육교사, 간호사,

특수교사, 간병인, 영양사, 회계사 등을 배출하는 전공영역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가정자원관리 영역에서 배출하는 공공가정관리 전문가는 또 다른 의미의 실무자여야 함이 명확해진다. 즉 해당경영체를 이용하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자와 같은 대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경영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자, 예를 들면 재무관리나 인력관리 혹은 마케팅 영역에서의 실무가 바로 가정자원관리 영역에서 공공가정경영을 교육받은 전공자들이 진출하여 활동하는 범주가 될 것이다.

물론 재무관리나 인력관리 혹은 마케팅을 전공하는 학문분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체라 해도 그 궁극적 목표가 이윤추구인가 아니면 욕구충족이나 제한된 이윤추구인가에 따라 경영의 방향에 차이가 날 것이며, 이러한 차별은 경영의 각 하위기능 영역에서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일반적인 재무관리나 인력관리 혹은 마케팅이 아니라 공공가정이라는 경영체의 특성을 반영한 재무관리와 인력관리 그리고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경영의 각 하위 기능영역별로 공공가정과 비공공가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연구를 통하여 (송혜림, 1997 참조) 이 점은 분명히 제시되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대상과 상관없이 경영과정에서의 각 하위기능영역별 실무자가 첫 번째 공공가정관리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범주임을 명확히 하면,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국한되지 않고 매우 광범위한 경영체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가정관리 전문가를 이용자 특성에 따른 실무자로 규정하면 안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부양경영체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활동은 목표에 상관없이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된다는 사실이다. 즉 가정의 부양기능을 제공하는 경영체는 그 목표에 상관없이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다. 보육교사나 간호사 혹은 특수교사를 예로 들어 볼 때 민간 어린이집이건 국공립 어린이집이건 혹은 영리추구를 목표로 하는 양로원이건 국가에서 욕구충족을 목표로 한 양로원이건 이러한 실무자들은 비슷한 형태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기되는 질문은, '이처럼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는 실무자의 활동만을 생각한다면 목표와 상관없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체를 다 공공가정연구 분야에서 다룰 수는 없는 것인가'이다.

그러나 우리 연구의 토대가 되는 원칙, 즉 '가정'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¹⁾에 기초해 볼 때 이러한 경영체는 이미 공공가정의 원칙적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목표에 있어서 욕구충족을 지향하는 경영체와는 다른 경영체이기 때문이다. 상이한 목표는 역시 상이한 수단 투입을 의미한다 (Witt, 1993:134).

물론 공공가정이 이용자의 욕구충족을 그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경영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과정에서 이용자의 특성이 중시되어야 함도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아동이나 노인 등의 대상에 관한 교육이 전반적인 공공가정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원리에만 공공가정관리 전문가의 교육내용을 국한시키기 보다, 가능하다면 아동발달이나 유아놀이지도 혹은 노년학이나 노인복지와 같은 과목이 포함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관리자나 경영자 측면을 살펴볼 때, 보편적으로 경영이론의 궁극적 목표는 관리자와 경영자로서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공공가정경영의 교육 역시 궁극적으로는 공공가정이라는 하나의 경영체에서 운영의 전반을 책임지고 기획관리하며 지휘할 수 있는 관리자 및 경영자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경영체의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과정에서의 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가정 경영의 각 하위기능영역에서 실무자로 활동하는 과정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지식 등이 공공가정경영의 교육과 실습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공공가정이 우리 학문영역에 소개, 전개되는 현재의 시점으로 보아 아직까지 공공가정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며, 이러한 개념정립이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히 수행되어야만 공공가정관리 전문가가 어떠한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교육내용과 연구의 틀을 설정하는 문제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수요를 어떻게 야기시킬 것인가, 나아가서 공공가정관리 전문가와 관련된 제도화작업 등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가 함께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의식 하에 공공가정의 기본개념에 대하여 모색해 보았다.

먼저 공공가정을 하나의 부양경영체로 볼 때, 수행기능에 있어서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추구경영체와 동일시 수 없는 특수성 그리고 필수성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제한된 이윤추구라는 목표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공공가정도 다른 경영체와 마찬가지로 이윤추구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 경영에의 동기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가정에도 분명히 경영의 원리와 적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하여 공공가정경영에 관한 교육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념규정과 관련되어 공공가정경영을 교육받은 전공자들이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는가 하는 실제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가정의 궁극적 목표가 이용자의 욕구충족 및 제한된 이윤추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수행되었으며, 따라서 줄

1) 가정은 자체구성원 혹은 인간(집단)의 욕구충족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사회적, 경제적 단위이다 (Weber, 1972:46 ; Egner, 1952:33 ; v. Schweitzer, 1992:134-141 - 송혜림, 1995:190 재인용). 가정경영활동의 근본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v. Schweitzer, 1981:169ff).

업생의 진로라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공공가정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영리추구 경영체에까지 공공가정의 범주를 확산시켜 버릴 때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욕구충족과 제한된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경영체로만 공공가정을 규정하는 것이 실제 대상을 너무 제한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관련하여, 욕구충족과 제한된 이윤추구라는 개념 만으로도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대상을 공공가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가정과 관련된 연구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의 범주라기 보다는 경영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본다. 왜냐하면 공공가정을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는 필수적으로 이용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이용자와의 관련 속에서 오히려 공공가정의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지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 혹은 기숙사나 연수원 등과 같이 이용자 특성에 따른 공공가정을 제시하다 보면 각 대상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학문분야가 따로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공공가정에서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기술을 우리의 전공분야에서 한꺼번에 교육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공생들의 활동영역은 오히려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가정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는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모든 공공가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경영의 원리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명확해 질 때 공공가정과 관련하여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가정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층적 연구를 통하여 공공가정의 이론적 틀을 보다 확고히 하고 이에 힘입어 실제적인 제도화작업이 병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 개별가정 및 다른 부양활동경영체와의 맥락에서 공공가정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개념, 범

주, 활동내용, 경영원리 등)

둘째, 공공가정경영론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 (연구의 틀, 전개방향, 가정학 내에서의 위치, 환경과의 관계, 기능중심적 연구)

셋째, 가정경영/가정자원관리연구의 분야 속에 공공가정을 포함시키는 것의 결과는 무엇인가?

넷째, 공공가정경영을 교육받은 전공자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

따라서 연구자들이 실제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일은, 아직까지 전공자 외에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인 공공가정 자체를 확산시키고 익숙한 개념으로 만드는 일, 공공가정관리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창출하는 일,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가정관리 전문가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뒷받침하기 위하여 행정이나 제도적 영역과 연대를 갖는 일이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학문 속에서 성립된 일정한 전공분야는 이론적 기초에 힘입어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 사회에 기여하고 그것은 필수적으로 전공자의 취업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전공자의 취업이라는 실제적 이유가 공공가정을 가정자원관리연구분야에 포함시킨 결정적 배경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이것이 곧 취업 때문에 한 학문분야의 틀이나 대상 혹은 목표가 기본적인 범주를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취업을 위하여 학문의 범주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취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원칙적이고도 기본적인 전공의 범주가 정착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대상 범주의 확산이나 응용영역에 관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가정자원관리 연구자가 해야 하는 일은, 공공가정의 목표와 무관하게 구체적인 대상을 공공가정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구충족과 제한된 이윤추구라는 공공가정의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목표에 부합되는 다양한 공공가정의 예를 현실세계에서 발견하고 그 경영원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심층적으로 진행되고 나면, 공공가정의 응용범주에 대한 논의도 가능해 질 것으로 전

망된다. 즉 앞의 그림 1에서 제시되었던 집단 3에 해당되는 호텔이나 일반병원 등과 같은 영리추구 경영체에도 공공가정 경영의 원리를 확장시켜 적용할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지리라고 본다. 이렇게 된다면, 가족자원관리 분야와 공공가정 그리고 영리추구 경영체 간의 상호적인 관계 그리고 학문적인 체계 등이 동시에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사회구조의 전문화·분업화 그리고 취업여성이 증가하는 추세는 필연적으로 개별가정의 기능을 지지·보충·대체하는 경영체에 대한 필요성과 개별가정의 의존도를 증가시킬 것은 자명하다. 또한 복지개념의 확산에 따라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공공가정의 출현이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가정은 그 숫자에 있어 지속적인 증가를 보일 것이며, 이는 공공가정관리 전문가의 필요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기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론과 실체가 병행되는 체계적이고도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송혜립(1995), 공공가정의 기본개념과 공공가정론의 연구방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89-199
- 2) 송혜립(1997), 공공가정의 대상범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173-184
- 3) 이기영(1997), 공공가정에서의 구성대상,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주최 1997 공공가정경영 워크샵 자료
- 4) 한국보육시설연합회(1997), 보육, 9/10월호
- 5) Bottler, J. (1993), *Der Großhaushalt in der Wirtschaftslehre des Haushalts*, in Bottler, J.(Hrsg.), *Wirtschaftslehre des Haushalts*, Baltmannsweiler : Schneider-Verl. Hohengehren, 109-117.
- 6) Witt, D. (1993), *Zum Gegenstand der Wirtschaftslehre des Haushalts*, in Bottler, J.(Hrsg.), *Wirtschaftslehre des Haushalts*, Baltmannsweiler : Schneider-Verl. Hohengehren, 118-136.
- 7) v. Schweitzer. R. (1981), *Wert und Bewertung der Arbeit im Haushalt*, in : R.v. Schweitzer(Hrsg.), *Leitbilder für Familie und Familienpolitik*, Festgabe für Helga Schmucker, Berlin, 167-192.